

옛날에 술을 좋아하는 왕이 생일을 맞이하여 신하들에게 각자 집에서 가장 좋은 술 한 통을 선물로 가져오라고 말했다. 드디어 왕의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 모든 신하들은 술 한 통이씩 가져와 큰 향아리에 가득 채운 다음 한잔씩 나누면서 축배를 들었다. 왕의 건배 제안에 따라 술을 마시던 신하들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다. 향아리 속의 술은 맹물에 불과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마 신하 각자로부터 술을 선물을 받았으면 왕은 가장 좋은 술맛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왜 향아리 속의 술은 맹물인가? 한 마디로 공중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쯤'이아 하는 이기심 탓이다. 익명성이 보장될 때 우리는 공중체의 선보다는 자기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왕정시대의 신하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자임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분명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일반 시민들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박정달 국회의원 제포동의인 부결이나 이명박 서울시장의 망언,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부작용 등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 불현' 망언은 공직자

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는 한 술 더 떠 "교통대란이 사전에 숙지하지 않은 시민 탓"이라는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부끄러운 모습까지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한 금언이다. 우리는 유비무환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을 정말로 잘 고쳤으면 하는 바람 뿐이다.

외양간의 쇠는 말뚝을 뽑고 새로운 말뚝을 박고 싶다. 그래서 다시는 외양간의 소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이다.

### 불자 세상보기



김상득  
전북대 윤리와 교수

## 공복의 구업

열여섯 번의 국회의를 통해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사탕발림 밑에 얼마나 속아 왔는가? 자라타들과 제 식구 감싸기가 17대 국회에서는 사라지리라 기대하였건만, 삼임위원장 배분과 박 의원 사건은 "역시 정치인은 어떻게 할 수 없어"라는 자괴감을 낳고 있다. 이뿐 아니다. 야파트분양 공개와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여권의 마찰음은 대한민국 여당이 과연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만 그런 게 아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이다. 외교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해도, 김선일

씨 피살로 인해 과연 이 나라의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역시 시민들의 발을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짓밟아도 되는지 의아심이 생긴다. 게다가 뒤늦게 터진 "서울시를 허나님께 봉헌한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발언은 이미 상식을 벗어난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까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는 정치나 행정이 국민을 바보 열간이로만 취급하지 않기를 바람 뿐이다.

익명성이 보장된다 공무원은 정치인의 행위가 그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이다. 우리도 이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싶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사심(私心)을 버리고 윤리적 옳고 그름이나 공중체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여 제도를 만들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직도 지나친 욕심일까? 공동선의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자.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불자의 눈

휴가는 단순한 시간보내기 휴식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내재한 창의성과 능력을 개발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휴가처 선택이 필수적이다.

올 여름에도 많은 피서객들이 산과 바닷가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산과 바다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내용 없는 여가시간을 보내다보면 여름휴가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심하면 후회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여름산사 수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정말 특별하고 알찬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아주 많다. 올 여름 불교계에서는 약 50여개 사찰에서 약 15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처럼 연속하고 딱딱하지만 한 걸음 풍습과 교리만을 주입시키는 수련회가 아니라 참가자의 관심사나 취향에 맞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게 매우 고무적이다.

## 내면 살찌우는 휴가 되길

올 여름 각 사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먼저 대상에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 가족, 부부 등 다양하다. 내용면에서 '전통 재래 배우기' '어린이 박물관 교실' '청소년 환경지킴이들의 금강탐사' '어린이 여름불교미술교과' 등 다채로운 내용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내용 가운데 예불과 발우공양은 기본이고 숲길산책, 식물채집, 탁본실습, 감자 구워먹기, 차 마시기 등 우리가 보통의 일상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아기자기한 체험들이 많아 여름산사의 수련은 분명 '자기 넓히기'와 '추억 만들기'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찬 여름휴가를 산사에서 보내는 일은 비단 불자들만 선호할 일이 아니다. 누구나 니를 얹어매고 있는 여러 사찰들에서 잠시나마 훌쩍 벗어나 자연 속에 파묻혀 자기를 관조하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는 일은 알찬 여름휴가를 보낼 줄 아는 또 하나의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올 여름휴가는 서슴치 말고 훌쩍 산사를 향해 떠나보라. 평생 겪어보지 못한 싱그러움 체험과 뿌듯한 기억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 도수정업도량 화주

### 이렇게 들었다 혼자 사는 거구

대개 사람된 자는 마땅히 다섯가지 일로써 천축을 친하고 공경해야 한다. 첫째 배불고, 둘째 착한 말을 쓰고, 셋째 이롭게 하고, 넷째 이익을 한가지로 하고, 다섯째 속이지 않는 것이다. <선경>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자녀 없이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사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고령사회 진입과 가정 해체, 이혼율 증가 등의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부부와 자녀를 근간으로 하는 '정상적인' 가정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1인 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의 점유율도 40%를 웃돌 것이라 하니, 살기에 급급해 부모 공경을 등한시하고 가족보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대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가정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묘안이 없다는 점이다. 사회전반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극심한 경쟁체제 속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 혼자 잘 살겠다'...라는 책망의 말을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내와 아이를 먼 타국에 유학보내놓고 쓸쓸히 하루하루를 마감해야 하는 '기러기 아빠'에서부터 육아에 대한 막중한 부담으로 부모이기를 포기하는 젊은 부부들, 자신의 생계도 장담할 수 없어 '나홀로'의 삶을 선택한 미혼남녀에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 고통 없고 아픔 없는 가슴이 있겠는가.

하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지친 영혼의 안식처와 새로운 희망의 섬터가 되었던 곳은 세상을 다 안겨줄 것만 같았던 '돈'도 다양한 삶의 재미와 편안함을 이끌었던 '자유'도 아닌 가족의 품, 가정의 울타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 하나가 절실한 요점이다. ■ 김은경(경북부 기자)

###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 서울시장 '망언' ... 분노 항의 이어져

○... 이명박 서울시장의 봉헌서를 보니, 작금의 이 나라 정치인들의 공직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 한쪽이 쓸쓸해진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선거를 통해서 자기를 뽑아준 국민은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서 전락시키고, 일단 선점한 자리에서는 공직자로서 의무는 아랑곳없이 무소불위의 권력만을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하려한다. 자신을 봉헌해야 할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의 사유물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봉헌하겠다는 정정자세가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장의 그러한 태도는 이 나라에서 자신의 평생을 걸어 국가에 봉헌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을 능멸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한 정정자세가 바로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부정부패의 씨이요, 징후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시장이라는 자리는 공인의 입장임이 분명하며 자신의 사적 소신과 공인의 신분을 혼동하여 수많은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한 행위는 반드시 공개 사과해야 한다. 균형각각이 결여된 사람이 뒷자리에서 매사를 좌지우지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는 이런 불행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 앞에 겸허히 사

과하라. ○... 이명박시장의 '서울 봉헌'의 언급에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과 함께 이명박 시장에게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이명박 개인의 것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이명박 장로의 것인가? 나는 서울 시민이 그 전에 한 불자로서 '이명박의 망언'이고 서울시민을 무시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망언을 규탄한다.

○... 기독교인들의 망발을 볼 때마다 흥분만 해야 하는 불교계의 현실이 안타깝다.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지고도 늘 기독교에 밀려나는 듯한 현실을 타개할 불교계 지도자는 없는 것인지. ○... 이번은 좌선에 몰두해 있고 사편은 기세등등한 불교계의 현실이 제2, 제3의 '이명박'을 만들 것이다. 국회에서도 불교계 국회의원이 급속히 줄고 표를 몰아준다고 하면 하룻밤 사이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불교인이 수없이 많다.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인재를 소중히 생각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불교의 앞날을 바로 직시하자.

○... 이명박 시장의 말에 대하여 논평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단지가 시장이 불교가 아닌 기독교 예배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더이상 비난하고 공격해야 하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성숙한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적절치 못한 말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불교가 진실한 믿음과 수행의 단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의 언행이 바로고 실천이 옳다면 무슨 주장이 필요하며 무슨 대응이 필요하겠는가. ○... 종교간의 갈등이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비극을 가져왔던가는 역사가 절절하게 증명하고 있다. 아니 지금도 중증에서 보듯이 처참하기 이를데 없었던 참으로 공인의 신분을 망각한 불배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의 기업가로서의 신선한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감을 느낀다. 조계종의 대응은 물론이려니와 차제에 불교계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포교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불타뉴스/도원

○...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고 서울시민을 모독했다. 서울은 기독교인만 살아가는 곳도 아니고 그 누구에게 줄수 있는 사적 재산도 아니다. 서울시장은 개인적인 종교행사에 참석할 것이라 하지만, 직책을 서울시장으로 밝힌 점으로 보아 개인적인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서울시민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한 점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 불타뉴스/정도



## 명상과 소리의 만남 락 페스티벌

숲속의 철 육지장사 특별수련회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산사축제

서울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광화문, 승용차 45분거리) 숲이 우거지고 산세 소리 굽이지 않는 백옥으로 장엄된 도량 도리산 육지장사에서는 도심인의 되풀이되는 일상생활속에서 심적 불안과 갈등, 온갖 스트레스로 찌든 삶을 한순간이라도 정화하기 위한 특별한 여름휴가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수련회!  
고요적정해야하는 명상과 시골벽적 요란한 락뮤직의 만남!  
어찌보면 극과 극의 대립이지만 이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인 인간적 깨달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동참하시어 마음의 번뇌로부터 오는 고통과 육체적 긴장에서 해방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행운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련일시 : 2004년 7월 31일(토) 오후 2시 ~ 8월 1일(일) 밤 10시
- 장 소 : 도리산 육지장사(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삼보사
- 프로그램 : 제1부 - 명상 · 관행수행  
제2부 - 젊음이 폭발하는 락 페스티벌공연 (공연은 무료, 누구든 참석 가능)  
7월 31일(토) 밤 8시 ~ 10시(출연진: 가이아, 베베, 블랙홀) 선 무용단 이선옥교수의 그제자  
8월 1일(일) 밤 8시 ~ 10시(출연진: 보리즈, TO, 블랙스드름) 선 무용단 이선옥교수의 그제자
- 수련등록금 : 삼만원(숙박 수련생에 한함)  
계좌번호(하나은행 110-082213-00105 예금주 삼보사)
- 인 원 : 150명(숙박 수련생 선착순 접수)
- 문 의 : 031)871-0101(육지장사), 02)352-6406(삼보사)  
홈페이지 www.yukjijangsa.org (한글도메인 육지장사)

## 지장대불기도 도량 양주 대원정사

### 백중 설판공양 영가천도기도

백중 8월 30일(음 7월 15일) 우란분절로 '효' 사상을 일깨우는 뜻 깊은 명절입니다. 나로 인한 선망조상이나 부모님을 위한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사업 원만 발전, 가족들의 안녕 및 입시 자녀를 위한 백중 49일 기도 입재를 7월 13일(음 5월 26일)에 봉행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인연 따라 두루 동참하시어 나로 인해 비롯된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자녀들의 입시기도를 비롯한 학업성취 등 저마다 소원하신 바를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 동 참 비 : 영가 1위 30만원(백중 49일 기도기간 중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영가시식봉행)

▷백중 입재 : 7월 13일(음 5월 26일) 오전 11시	초재 : 7월 19일(음 6월 3일)
2재 : 7월 26일(음 6월 10일)	3재 : 8월 2일(음 6월 17일)
4재 : 8월 9일(음 6월 24일)	5재 : 8월 16일(음 7월 1일)
6재 : 8월 23일(음 7월 8일)	

▷백중(108참회기도)회향 : 8월 30일(음 7월 15일) 오전 11시

■ 토요일 철야정진 기도  
- 토요일 밤 11시부터 일요일 새벽 4시까지

■ 판소리 / 장구 회원 모집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참가비 1개월 : 1만원 (학생 · 일반인, 가족회원 환영)

○오시는 길 1. 셔틀버스 - 오전 10시 10분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문산 방향 환승주차장) 출발  
- 오전 10시 30분 장흥 농협 앞 출발  
2. 자가용 : 서울 구파발 → 장흥 → 돌고개 앵부봉 관광지 → 대원정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126번지  
지장대불조성 민등불사 접수중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정사 전화 031)855-5501, 3 / 팩스 031)855-5502